
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專門委員 檢討報告

□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5년 8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05년 8월 29일

□ 제안 이유

○ 행정자치부의 「지방소방관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지침」에 의한 소방력 보강과

○ 진천소방서 및 봉양·청산파출소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

□ 주요 내용

○ 정원의 총수 : 2,545명 ⇒ 2,595명 (증50명)

- 집행기관의 정원 : 변동없음
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변동없음

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97명 ⇒ 1,047명 (증50명)

- 교육공무원의 정원 : 변동없음

○ 직급별 증감내역 : 소방직 50명

- 소방정 증1, 소방령 증11, 소방경 증22, 소방위 감1, 소방장 감2, 소방교 증8, 소방사 증11

○ 다른 조례의 개정(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- 진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

□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. 7. 27행 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및 소방관서·구조구급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 배치하려는 것입니다.

- 근 거 : 행정자치부 『지방소방관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지침』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먼저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현재 997명에서 50명을 증원한 1,047명으로 조정되고 직급별로는 소방정 1명, 소방령 11명, 소방경 22명, 소방교 8명, 소방사 11명 등 53명이 증원되면서 소방위 1명, 소방장 2명 등 3명은 감원하게 됩니다.

- 또한 신설되는 소방관서는 진천소방서와 제천소방서 봉양파출소, 영동소방서 청산파출소 등 3개관서이며,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청주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, 그리고 제천소방서에 “구조구급과”가 설치됩니다.

- 진천소방서 : **증 23명**(소방정1, 소방령2, 소방경6, 소방위2, 소방장3, 소방교4, 소방사5)

- 진천소방서 증양파출소(종전 “진천파출소”) : 25명(21명 + **증4명**)

- 제천소방서 봉양파출소 : 13명(7명 + **증6명**)

- 영동소방서 청산파출소 : 17명(10명 + **증7명**)

- 청주동부소방서 구조구급과 : 6명(3명 + **증3명**)

- 청주서부소방서 구조구급과 : 6명(3명 + **증3명**)

- 제천소방서 구조구급과 : 6명(4명 + **증2명**)

- 검토결과,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지

방소방관서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직급조정을 통해 소방력 등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.

- 무엇보다 이러한 정원조정의 배경에는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으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와 인력부족에 따른 유사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,
- 실제로 도내 998명의 소방공무원중 74.5%인 744명이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하는데다 비번시에는 보충·비상근무 등도 감수해야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은 그 단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다양한 소방행정수요에 걸맞는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본연의 임무인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업무를 보다 충실하기 위해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집니다.
- 다만, 보다 효율적인 안전 심사를 위해 현소방인력 배치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과 최근의 연도별 사안별 출동 및 주요 조치상황, 그리고 적정규모의 소방인력운용에 관한 방안제시가 필요합니다.
- 아울러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연간 약 26억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, 그리고 앞으로의 단계적 소방인력보강 운용계획 등에 대해서도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